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제34회 공개포럼(2023.04.27.)

교양교육으로서의 고전읽기 교육

윤승준(단국대)



차례

1. 대학, 그리고 교양교육
2. 고전, 그리고 고전읽기
3. 고전읽기 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고민
4. 고전읽기 교육의 실제: 단국대의 경우

1. 대학, 그리고 교양교육

1. 대학, 그리고 교양교육

- 교양교육과 대학

계몽이란 인간이 스스로의 잘못으로 초래한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미성년 상태란 다른 사람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무능력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미성년 상태의 원인이 지성의 결핍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지도를 받지 않고서 지성을 사용할 결단력과 용기의 결핍 때문이라면 미성년 상태는 스스로의 잘못으로 초래한 것이다. **과감히 알려고 하라! 자기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이것이 계몽의 슬로건이다.

- 칸트(1784), 「계몽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



1. 대학, 그리고 교양교육

- 교양교육과 대학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연적 연령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타인의 지도에서 해방된 (즉 자연인으로서 성년이 된) 이후에도 평생토록 기꺼이 미성년 상태에 안주하는 이유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주 쉽사리 주제넘게 그들의 후견인으로 자처하는 이유도 그들의 게으름과 비겁함 때문이다. 미성년 상태에 안주하는 것이 너무나 편안한 것이다. 만약 나의 지성을 대신하는 책이 있고, 나를 대신해서 양심을 지켜주는 성직자가 있고, 나를 대신해서 건강을 지켜주는 의사가 있다면 나는 굳이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 나는 비용을 지불할 능력만 있으면 스스로 생각할 필요도 없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성가신 일을 도맡아 줄 것이다. 마치 호의라도 베풀 듯이 그들에 대한 감독을 떠맡은 후견인들은 (모든 여성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년으로 나아가는 행보를 버거울 뿐 아니라 아주 위험하다고 여기도록 조장한다. 후견인들은 먼저 그들이 돌보는 가축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이 온순한 피조물들이 그들을 가두어 놓은 보행기 바깥으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도록 주도면밀하게 단속해 놓은 다음에 그들이 자력으로 걸음을 옮기려 할 때 닥쳐올 위험을 보여준다. 사실 그런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다. 왜냐하면 몇 번 넘어지고 나면 결국 걷는 법을 배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넘어지는 사례를 보여주지만 해도 그들은 지레 겁을 먹고서 대개는 더 이상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단념하게 된다.

- 칸트(1784), 「계몽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

1. 대학, 그리고 교양교육

- 교양교육과 대학



나는 한 아이나 젊은이가 자신의 길 위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낯선 길 위에서 바르게 걷고 있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니까.

...(중략)...

착한 인간은 비록 어두운 총동 속에서도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잘 알고 있더군요.

- 요한 볼프강 폰 괴테, 『파우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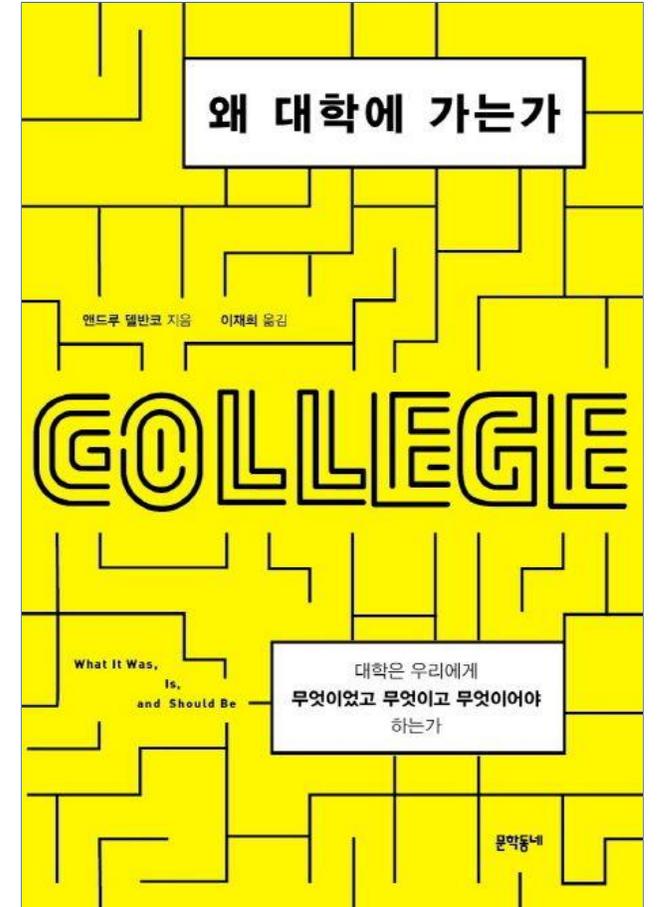
1. 대학, 그리고 교양교육

● 교양교육과 대학

대학은 젊은이들이 청소년기에서 성년기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어야 한다. 학생들이 그 위험천만한 중간지대를 무사히 헤쳐 나가 마침내 스스로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대학은 강압이 아닌 지침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은 또 성찰하는 시민에게 요구되는 지성과 마음의 자질을 학생들이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Andrew Delbanco(2012), *College: What it was, is, and should be*

- 과거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재를 회의적으로 파악하는 능력
- 서로 무관해 보이는 현상들을 연결하는 능력
- 과학과 예술에 대한 수준 높은 식견을 갖추어 자연계를 이해하는 능력
-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태도
- 윤리적 책임 의식



1. 대학, 그리고 교양교육

- 교양교육과 대학

자유교육의 목적은 추정을 뒤흔들어 놓고,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만들고, 외양의 저변과 이면에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는지를 규명하고, 젊은이들의 방향 감각을 혼란시키며 그들이 스스로 방향 감각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자유교육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설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자기성찰을 유발하고, 비판적이며 분석적인 사고를 가르치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과 근본적으로 상이한 역사적 계기와 문화적 형성과의 만남에서 소외감을 경험하게 한다.

- Harvard University(2007), *Report of the Task Force on General Education 2007*.

A LIBERAL EDUCATION IS A LIBERATING EDUCATION IN THAT IT FREES THE MIND to seek after the truth unencumbered by dogma, ideology, or preconceived notions. A liberally educated person can think for himself or herself, is both broad- and open-minded, and is, therefore, less susceptible to manipulation or prejudice.

- AAC&U(2023), *What liberal education looks like*

1. 대학, 그리고 교양교육

- 교양교육과 대학

교양기초교육이란 대학 교육과 평생교육 전반에 요구되는 지식의 습득 및 자율적 학문 탐구 능력의 함양을 포함하여, 인간, 사회, 자연, 예술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관과 가치관을 스스로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교육으로, 학업 분야의 다양한 전문성을 넘어서서 모든 학생에게 요구되는 보편적·통합적 자유교육이다. 또한 교양기초교육은 초연결·초지능 사회, 다양한 위기의 지속이라는 새로운 시대상을 맞아 객관적 사실 인식을 토대로 하는 비판적·창의적 사고와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민주주의 공동체의 문화적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 한국교양기초교육원(2022),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

-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와 가치관 정립
- 학문 탐구를 위한 보편적 문해 능력 함양
- 비판적 사고 능력과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함양
- 융합적 사고 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함양
- 공동체 의식과 시민정신 함양
- 심미적 공감 능력 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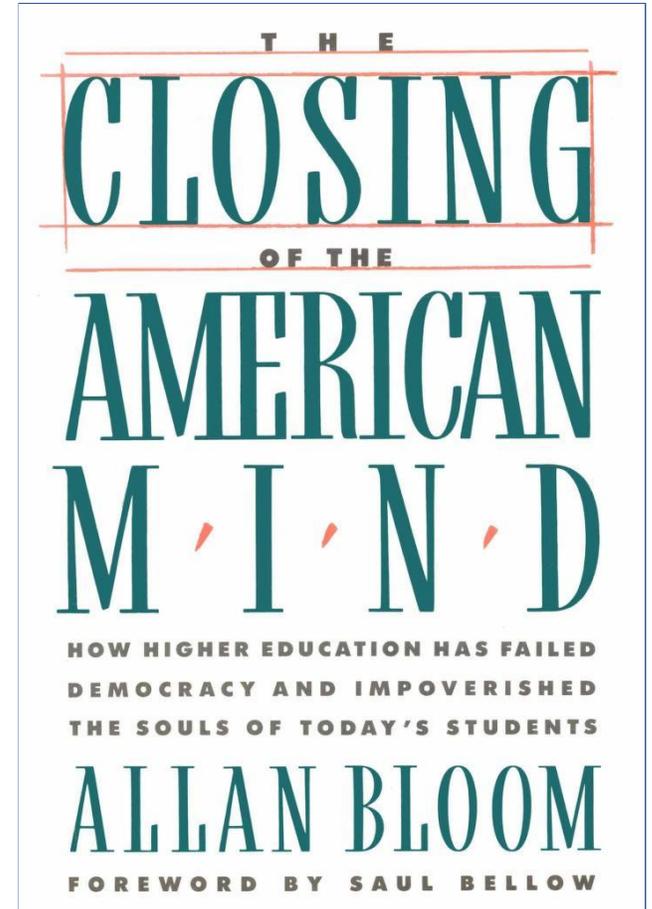
1. 대학, 그리고 교양교육

- 교양교육과 대학

그가 교육받았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인간의 잠재력을 완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숙고해보게 된다. 전문 분야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와 같은 심사숙고를 회피하여도 되는데, 바로 그와 같은 회피가 전문화의 매력이다. 그러나 여기 인문 교양교육의 경우는 그것이 피할 수 없는 간단명료한 임무다. 이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 해답이 자명하지 않지만 그 질문에 대답해 보려는 자체가 이미 철학적 사색이고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다. ...(중략)... 물론 유일하고 진지한 해결책은 훌륭한 고전작품을 읽게 하는 것인데, 그 방법은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거부된다.

- Allan Bloom(1987), *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

- 훌륭한 인문 교양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진실과 열정에 대한 애정을 키워 훌륭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준다. 그것을 택하는 학생이 감격을 맛볼 수 있고 각 대학의 특수 사정에 맞춘 연구 과정을 고안한다는 것은 아주 손쉬운 일이다. 그런 과정을 교수진이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 어렵다.



1. 대학, 그리고 교양교육

● 교양교육과 대학

..... Erziehung ist sich erziehen

교육은 자기 교육이다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

1989년 8월



東文選 現代新書
174

- 갑자기 가정의 품에서 벗어나 **대학생이 되었을 때** **제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양 있고 상냥한 여학생들과 우연치 않게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중략)... 이때 전 너무나도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1918년에 소개를 받아 테오도르 레싱의 《유럽과 아시아》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중략)... 전 그 사람을 천재로 치켜세우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독서를 하면서 즐겼던 소중한 경험을 잊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배웠던 것은 진보적 낙관주의로서, ...(중략)... 제게 큰 감명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 러시아·스칸디나비아·네덜란드의 소설은 물론 번역이 쉽고, 잘 된 그외 지역의 소설들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간의 도야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도야 방식은 오늘날 대학에서 특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대중매체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으며, 대학(University)의 교육과정과 직업 준비에서도 점점 더 전문화 경향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 『교육은 자기 교육이다』

- **교육에서 결정적인 것은 궁극적으로 성장하는 세대로 하여금 자기 활동성을 통하여 자기가 지니고 있는 결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을 길러 주는 일입니다.**
-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

2. 고전, 그리고 고전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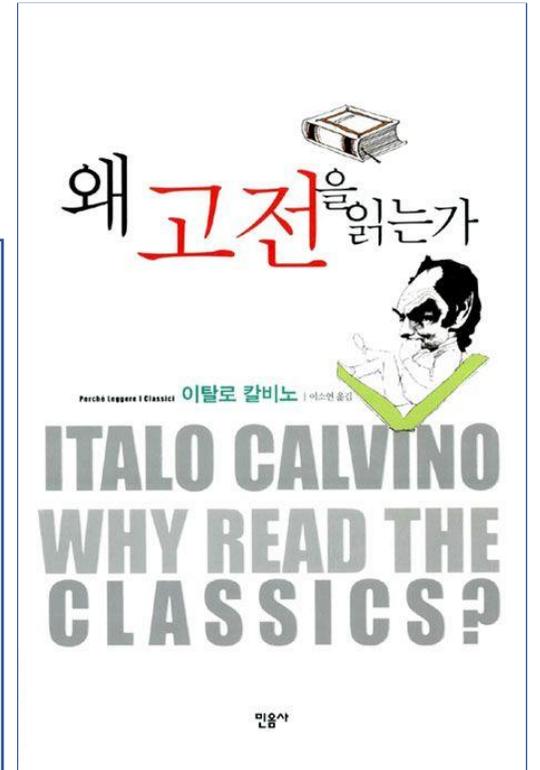
2. 고전, 그리고 고전읽기

- 고전이란?

이제 나는 지금까지 쓴 글을 다시 써야 할 듯하다. 고전이란,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중략)...

그리고 나서 이 글을 진정으로 다시 써야만 할 것이다. 고전은 무언가에 '유용하기' 때문에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실은 고전은 읽지 않는 것보다 읽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혹여 누군가가 고전을 구태여 읽을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한다면, 나는 시오랑(Emil Michel Cioran, 1911~1995)의 다음 글을 인용할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독약이 준비되어 있는 동안 피리로 음악 한 소절을 연습하고 있었다. '대체 지금 그게 무슨 소용이오?' 누군가 이렇게 묻자,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래도 죽기 전에 음악 한 소절은 배우지 않겠는가.'"

- 이탈로 칼비노(2002), 왜 고전을 읽는가



- 고전이란 사람들이 보통 "나는를 다시 읽고 있어,"라고 말하지 "나는를 읽고 있어."라고는 결코 이야기하지 않는 책이다.
- 고전이란 그것을 읽고 좋아하게 된 독자들에게는 소중한 경험을 선사하는 책이다. 그러나 가장 좋은 조건에서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만이 그런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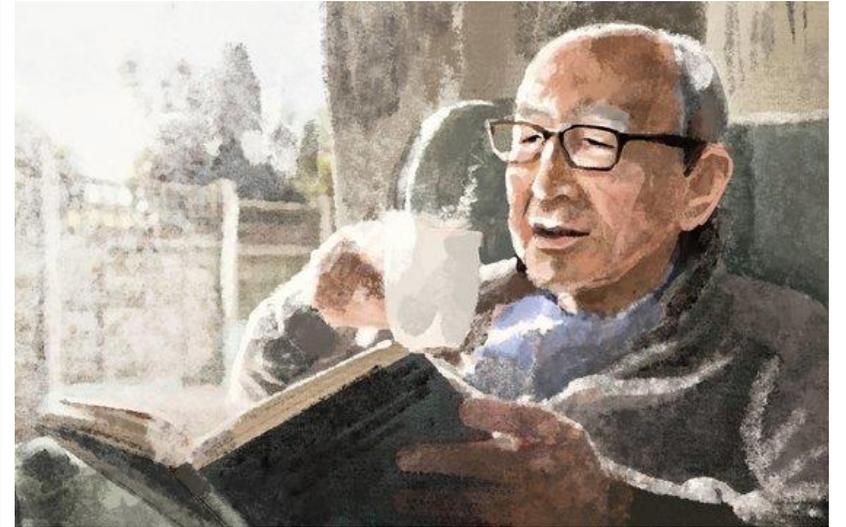
2. 고전, 그리고 고전읽기

-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

1970년대는 한국경제 도약의 시기였다. 기업들이 연수원을 갖고 사원교육에 열중했다. 기업체의 중견직원들과 대졸 신입사원을 위한 교육이 그렇게 왕성한 때는 없을 정도였다.

나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강의에 도움을 주었다. 한 번은 삼성그룹 대졸 신입사원을 위한 시간이었다. 대학에 다닐 때 "나에게 고전의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되는 책 10권을 읽은 사람은 손을 들어 보라"고 했다. 없었다. 5권도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독서를 하지 않으면 과장까지는 시키는 일만 하면 되니까 괜찮겠지만, 그 이상의 직책을 맡게 되면 자기빈곤을 느끼게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걱정했다.

- 김형석의 100년 산책, 중앙일보 2023.5.13.



- 역사를 더듬어 보면 문화의 정신적 태양 책임을 담당한 국가는 다섯 나라뿐이다. 역사적 순서로는 영국, 프랑스, 독일이 그 위치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러시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러시아가 공산국가가 되면서 사상이 통제되고, 인문학이 사라지면서 그 후계국이 되지 못하고 미국이 대신하게 되었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이 문화국의 대열에 참여했다. ...(중략)... 그런데 이 다섯 나라의 특성이 무엇이었는가. 국민의 절대 다수가 100년 이상 독서한 나라들이다.

2. 고전, 그리고 고전읽기

-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



왜 고전을 읽는가? 왜냐하면 전 세계의 어린 학생들이 모두 고전을 읽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만 빼놓고. ...(중략)... 고전은 지식의 보고가 아니라 지식의 장수 유전자가 잘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지식은 한 분야에만 쓰이지만 지식의 유전자는 모든 분야에 두루 응용될 수 있는 융통성이 '뽕뽕'하다. ...(중략)... 인간 두뇌의 용적은 참으로 작아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그 안에 우겨 넣으려 하면 터져버린다. 그러니 지식을 넣을 게 아니라 생각의 촉매들을 양질의 것들로 골라 넣어두어야 한다. ...(중략)... 왜 어렸을 때 읽어야 하는가? 아직 기억의 주름이 말랑말랑해서 읽은 내용의 알맹이가, 예쁜 건포도가 빵 속에 박히듯이 쏙쏙 심기기 때문이다.

- 정과리, 고전을 읽어야 할 절박한 이유, 조선일보 2004.9.11.

2. 고전, 그리고 고전읽기

-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

위대한 저서들은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가장 복잡한 관념들의 견지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사유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위대한 저서들은 이 문제들에 관해서 생각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상의 가장 명료하고 가장 단순한 표현이다.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이보다 더 읽기 쉬운 책들은 없다.

- Robert M. Hutchins(1952), *The Conflict of Education in a Democratic Society*



- 진정으로 교육받는 최선의 방법은 과거의 위대한 작품들에 몰입하는 것이다.
 - 콜롬비아대학교 존 어스킨(John Erskine) 교수
- 고전은 우리에게 도전과 보상 둘 다를 준다. 그 책들은 우리에게 어렵고도 기본적인 질문들, 즉 우리들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되기를 희망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기 때문에 도전적이다. 이것들은 우리가 연구하는 모든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우리들의 인생에 기대하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질문들이다. 고전은 우리들이 고전이 주는 대답을 더 잘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다.
 - 시카고대학교 허친스(Robert M. Hutchins) 총장

2. 고전, 그리고 고전읽기

-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



일련의 위대한 작품들을 ...(중략)... 어떤 목적으로 읽는 것인가? ...(중략)... 지난날의 대학에 제기되었던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전인(全人)을 양성하는 것> 혹은 <교양 있는 신사> 혹은 감수성을 가진 젊은이를 만드는 것이었고, 이러한 대답은 그 위원회에서 비판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중략)... 아마도 이 교과과정에 대한 가장 획기적인 비평적 체계화는 ...(중략)... <지적 여행>이라고 명명했던, 네이글 교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중략)... 그러나 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 언제, 어디서 그 여행이 행해져야 하는가? ...(중략)... 감수성이 강한 1학년에게 서구문학에 대한 쿡(Cook)의 여행을 소개하여 투키디데스, 단테, 그리고 몰리에르가 누구이며 그들이 무엇을 말했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념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학생에게 사색적 독서의 실제와 복잡한 작품에 대한 비평적 이해를 소개하는 것이 그것이다. ...(중략)... 젊은이들이 작품에 직접적으로 접근하여 위대성의 긴장된 충격을 직접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략)... 위대한 작품과 직면하는 한 목적은 <자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는데, 한 작품에 대한 그 사람의 직접적 반응, 정서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동일한 작품이 연속적으로 자아의식의 다른 양상들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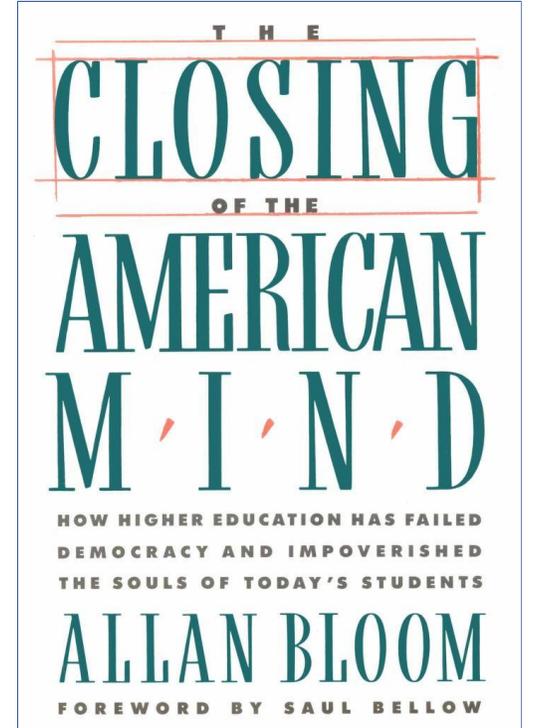
- 다니엘 벨(1966), 교양교육의 개혁: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의 경험

2. 고전, 그리고 고전읽기

-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

그러나 한 가지만은 명백한데, 명작품을 주로 교과과정으로 하는 곳에서는 학생들이 흥분을 맛보고 만족을 느끼며, 자신들이 독립적이고 충족할 만한 그 무엇을 하고 있다고 느끼며, 대학으로부터 다른 곳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고 있다고 느낀다. 이 특별한 경험이 경험 이상의 것으로 승화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경험 그 사실만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선택의 폭을 제시하고 공부 그 자체를 존중하도록 해준다. 그들이 얻게 되는 이점은 고전에 대한 인식이 생긴다는 뜻이고 - 이는 특히 우리의 순진한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것으로서 그들이 중요한 질문이 존재하던 시절에 생겨난 중요한 질문들과 익숙해질 수 있고, 아무리 못해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모범을 접해 볼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공유할 수 있는 경험과 사색을 토대로 서로 간의 우정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 ALLAN BLOOM(1987), *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



2. 고전, 그리고 고전읽기

-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

- **고전읽기 교육에 대한 비판적 견해**

- 학습자의 요구나 능력을 등한시한다. - 교육자 중심 교육 ≠ 학습자 중심 교육
- 인간성에 대한 그릇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 대중문화 경시, 지역문화·특수한 문화 등한시
- '지금 그리고 여기'를 등한시한다. - 과거에 집중, 지금 여기에서 절박하게 대두되는 문제 등한시
- 주지주의적 인간을 만들기 쉽다. - 독서와 대화 중심의 학습 활동이 갖는 한계
- '위대한 저서' 선정의 자의성이 있을 수 있다. - 선정자의 주관성과 자의성 개입 여지
- 위대한 작품들의 공부에 인격형성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 지적 허세와 과시, 오만
- 윌리엄 데레저위츠(2015), 『공부의 배신: 왜 하버드생은 바보가 되었나』 ; 신득렬(2016), 『교양교육』

- “여기에 우리 존재의 근원들이 있다. 여기에 우리의 유산이 있다. 여기에 서양이 있다.”

- Robert M. Hutchins(1952)

- “상대주의는 교육의 참된 동기 즉 좋은 삶의 탐구를 소멸시켰다.” - ALLAN BLOOM(1987)

3. 고전읽기 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고민

3. 고전읽기 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고민

- 고전읽기 교육의 현황: 35개 이상의 대학에서 고전읽기 교육을 위한 교양 교과목 개설 운영

대학명	교과목명	대학명	교과목명
경희대학교	고전읽기	계명대학교	교양세미나
단국대학교	명저읽기	대구가톨릭대학교	독서와 토론
대구대학교	클라시카	동국대학교	세계명작세미나
동덕여자대학교	동서양고전읽기	부산대학교	고전읽기와 토론
상명대학교	명저읽기	서울대학교	고전탐구세미나
송실대학교	독서와 토론	선문대학교	읽기와 토론
성균관대학교	고전명저북클럽	연세대학교	GREAT BOOKS & DEBATE
인제대학교	인문고전강독	이화여자대학교	명작명문읽기와 쓰기
중앙대학교	창의와 소통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고전명저읽기
한밭대학교	고전읽기	한양대학교	4차산업혁명과 고전읽기

3. 고전읽기 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고민

- 고전읽기 교육의 현황

오늘날 많은 대학에서 고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왜 이러한 교육적 흐름이 형성된 것인가? 고전교육이 교양교육에서 하나의 중요한 교육적 흐름으로 자리잡게 된 배경은 다양하다. ...(중략)... 고전교육의 강화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교육 내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대학 내 교양교육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 2000년대 이후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면서 전국의 대학에서 기초교육원, 학부대학, 교양교육원, 교양대학 등 다양한 이름의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설립되었다. 동시에 각 대학에서 언어교육 중심의 교양교육 흐름이 글쓰기 교육 및 의사소통교육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다. 그 이후 글쓰기 교육 및 의사소통교육의 성과와 한계가 인식되면서 다시금 독서 및 고전교육으로 교양교육의 중심이동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많은 대학들이 고전읽기를 교양필수로 지정하거나 교육과정에 새롭게 도입하는 추세다.

- 이하준(2014), 「인성함양을 위한 고전교육의 방향 탐색」

- 한국 대학에서 고전교육이 다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글쓰기 교육 중심의 기초교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자각과 함께 교양교육의 본령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 윤승준(2021), 「고전교육, 교양필수 교과목 운영 사례」

3. 고전읽기 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고민

- 고전읽기 교육의 현황

- **고전읽기 교육에 대한 근본적 질문**
첫째, 왜 다시 고전인가?
둘째, 어떤 고전을 다룰 것인가?
셋째, 고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 손승남(2013), 「'위대한 저서(Great Books)' 프로그램을 토대로 본 우리나라 대학 인문고전교육의 방향 탐색」

- **교육철학의 문제** : 고전읽기 교육의 목적과 방향
- **교육내용의 문제** : 고전의 개념과 범주, 텍스트 선정의 문제
- **교육방법의 문제** : 고전읽기 교육의 목표 실현을 위한 방법, 학습자의 자발성과 자기주도성

3. 고전읽기 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고민

- 교육철학의 문제: 고전읽기 교육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고민

- 현실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주지 않는 독서, 특히 고전독서의 목적은 어떤 다른 목적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서 나와야 한다. ...(중략)... 고전을 통해서 독자가 얻는 가장 큰 이익은 고전독서 자체에서 와야 한다. 따라서 고전독서 교육은 고전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고 스스로 독서할 수 있는 독자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최근의 대학의 교양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고전독서가 일종의 스펙 쌓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쓸모없음의 글 읽기'를 주장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독서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쓸모없음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 이원봉(2017), 「대학 교양교육에서의 고전독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근대 이후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전적 답변은 한마디로 자기형성(Selbstbildung)으로 요약될 수 있다. ...(중략)... 고전교육은 그 어떤 교과목보다 보편적 가치교육을 우선에 두며 인간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다. 이런 점에서 고전교육의 궁극적 목적과 칸트나 아도르노가 말하는 자기형성으로서의 교육의 이념, 특히 양자의 '성숙' 개념은 그 맥을 같이한다. 그런데 국내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전교육은 도구화와 기능화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본래의 고전교육의 이념과 목적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이하준(2018), 「성숙과 계몽을 위한 교양교육」

3. 고전읽기 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고민

- 교육철학의 문제: 고전읽기 교육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고민

- 나쁜 작품이 주는 쾌락이 일시적인 것은 나쁜 습관이 주는 쾌락이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것은 읽는 자를 일시적으로 그것이 제시한 조건 속에 끌어 들여 그것에 살게 하지만, 독자들은 결국 그것이 그의 삶과는 관계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된다. 무협소설과 싸구려 에로소설 그리고 연애 편지에 흔히 인용되는 과장된 서정시들이 그렇다. 그러나 좋은 작품은 계속해서 독자들에게 고문을 가한다. 독자들이 좋은 작품을 통해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의 어느 한 부분을 혹은 전부를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것은 심한 고문을 가한다. 우선적으로 감정을 세척시키는 문학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것이 고문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문하는 문학은 보다 높은 의미에서 감정을 규제하고 억압하며 정신이 비판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막는다. 그것은 삶의 이유와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끈질긴 탐구를 가능케 함으로써 개인적인 감정을 규제하고 억압하여 타인과 그를 관련 맺게 한다.

- 김현(1976), 문학이란 무엇인가

3. 고전읽기 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고민

- 교육철학의 문제: 고전읽기 교육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고민

“해석의 미완결성, 지속으로서의 해석 개념에 의거하면, 자기이해 역시 완결된 것이 아니며 지속적·과정적 성격을 갖는다. ...(중략)... 그 어떤 인간도 완전한 자기이해에 도달하지 못하며 완전한 자기이해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 자체가 환상임을 ...(중략)... 가다머가 말하는 자기이해의 과정성, 좁은 의미의 텍스트만이 아니라 타자, 사회, 세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이해가 자기이해라는 시각에서 보면, 교양독서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은 참여하는 학생들의 자기이해 증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 이하준(2021), 「자기이해로서의 독서와 교양독서교육 비판」

3. 고전읽기 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고민

- 교육내용의 문제: 고전의 개념과 범주, 텍스트 선정의 문제

요즈음 각 대학은 명작, 혹은 권장도서를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고전을 읽히고 있다. ...(중략)... 비단 대학 뿐 아니라 출판사나 서점, 관청 등의 기관에서도 세계 명작선, 추천도서 등을 선정하여 읽히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전을 선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고충과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의 검토와 논의를 거친 후 심혈을 기울여 카논을 선정했음에 틀림없다.

- 정인모(2007), 「교양교육과 고전 읽기」

- “잘못하면 canon이 아니라 cannon이 될 수 있다.”

- 정전의 제정은 (문학) 권력의 억압과 폭력에 구애 받지 않아야 한다. 좋은 정전 창출의 길은 시대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훌륭한 포도주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나아지는 것이어야 한다.
- 정전은 살아있는 생명의 정전이 되어야 한다. 영구히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로서의 정전이 아니라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변화 가능한 정전이 되어야 한다.
- 카논 선정은 강제성을 띠기보다 독서하는 자들에게 정보 제공과 가이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강압적인 카논보다는 독자적이고도 나름대로 자유로운 카논 추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고전읽기 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고민

- 교육내용의 문제: 고전의 개념과 범주, 텍스트 선정의 문제

- 카논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점

첫째, 카논 선정은 보다 구체적이어야 하고 분야별, 장르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

둘째, 카논은 연령층이나 성별에 따라서도 각기 달리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카논 선정은 현대 작품을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

넷째, 카논은 종전의 문학교육의 두 축인 지성-감성의 문제와 더불어 재미로 읽을 것인가, 혹은 재미는 덜 하더라도 교육적인 의미를 더 살릴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늘 빠지게 된다.

다섯째, 위의 넷째와 관련해서 대중문학, 혹은 통속작품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여섯째, 외국고전의 경우 어떤 고전번역서를 택할 것인가도 고려되어야 한다.

일곱째, 고전읽기에 대한 열풍이 논술과 맞물려 작품 내용을 압축, 코드화하는 경향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외국에서 어떤 작품을 카논으로 선정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 정인모(2007), 「교양교육과 고전 읽기」

- 자연과학 분야 카논 선정에 대한 고민

3. 고전읽기 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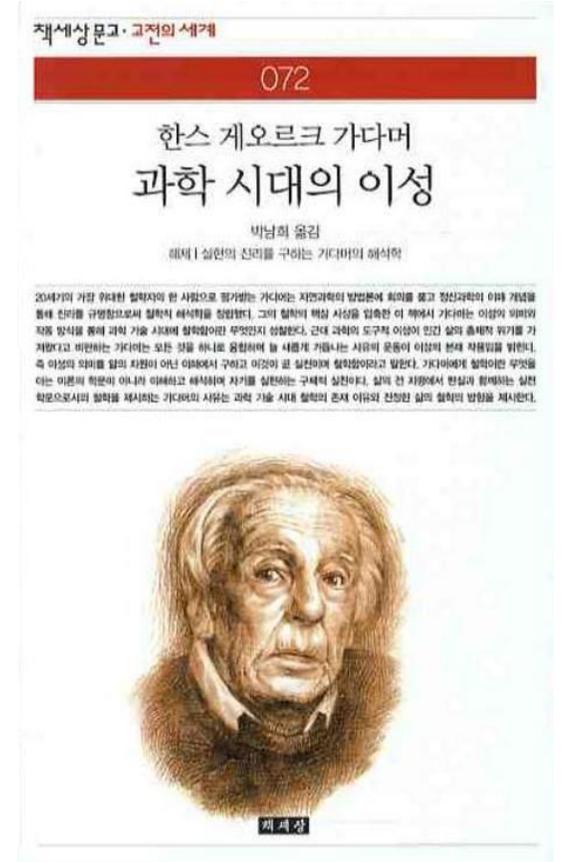
- 교육방법의 문제 : 고전읽기 교육의 목표 실현을 위한 방법

토론에 참여한 자들은 토론 이후 변화되어 헤어진다. 토론에 참여한 각각의 개별적 양상이 변화한다. 그들 자신이 변하는 것이다. 그것이 일종의 발전이다. 물론 연구의 발전이라든가 발전 후에 퇴보가 있을 수 없는 발전이 아니라 언제나 다시 삶의 긴장 속에서 새로워지는 발전이다.

-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 박남희 옮김(2009), 『과학 시대의 이성』

- 가다머는 독서가 혼자 읽고 혼자 이해하는 활동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그에게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을 뜻한다. 가다머의 생각은 단지 텍스트-독자 관계에서만 아니라 같은 텍스트를 읽고 토론하는 독자-독자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적용을 독백적 독서의 지양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교양독서교육이 토론중심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 이하준(2021), 「자기이해로서의 독서와 교양독서교육 비판」



3. 고전읽기 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고민

- 교육방법의 문제 : 고전읽기 교육의 목표 실현을 위한 방법

책 읽기는 한 인간의 생애사에서 가장 최초의 자기 교육의 체험이고, 가장 궁극적인 자기 교육의 형태이기도 하다.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궁극적 답변이 바로 이 '자기 교육'의 개념 속에 있다. '자기 교육'이란 개념은 교수-학습자 관계에서 교수자를 교육 주체로 고정시키는 전통적인 교육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성립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그러나 인간 마음의 여러 면과 층동들을 단순화해서 어떤 원칙을 만들고, 어떤 질서를 갖추려고 하는 노력이 인간 이성을 만든다고 할 때, 자기 교육은 누구에게나 교육의 가장 궁극적인 형식이 아닐 수 없다. ...(중략)...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는 누구보다도 교육의 핵심이 자기 교육, 자기 도야에 있음을 힘주어 강조한 사상가다. ...(중략)... 가다머에 의하면 성공적인 자기 교육, 자기 도야의 방법은 다름 아닌 '대화'를 통해 가능하다. ...(중략)...

책 읽기는 본질적으로 '대화'의 활동이 아닐 수 없다. 우선 글쓴이와 읽는이의 '대화'라는 것이 자명한 이치일 터이고, 이 뿐만이 아니라 책 읽기는 그 책을 읽기 전의 자신과 지금 책을 읽고 있는 자신과의 대화이고, 같은 책을 읽고 있는 다중 혹은 집단지성과의 대화이며, 그 책의 세계와 그 바깥 세상과의 대화이기도 한 것이다.

- 김주언(2019), LAC 교과목으로서 「명저읽기」 강좌의 방향 설정을 위한 모색

3. 고전읽기 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고민

- 교육방법의 문제 : 고전읽기 교육의 목표 실현을 위한 방법

내가 몸담고 있는 대학의 저명한 교수였던 라이어널 트릴링은 인생 말년 무렵 이런 이야기를 했다. "운에 의해서든 기량에 의해서든" 소규모 토론 수업이 잘 진행된다면, 이는 "특별한 교수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중략)... 학생들은 소규모 토론 수업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와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음을, 그들의 경험이 내 경험과는 대체될 수도 심지어 양립할 수도 없음을 발견하는, 기분 좋은 꾸짖음을 경험하게 된다. 소규모 토론 수업은 이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토의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장이 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교사는 권위 있는 말의 전달자도, 법칙의 제정자도 아닌 일종의 선동자 역할을 한다.

- Andrew Delbanco(2012), *College: What it was, is, and should be*

- '읽기-토론-쓰기'가 긴밀하게 연계된 통합교육방법론이 지배적
- 이 과정에서 '수평적 학습'이 자연스럽게 일어 남
 - 수평적 학습이란 학생들이 교수보다 다른 학생들로부터 중요한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을 의미

3. 고전읽기 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고민

- 교육방법의 문제 : 고전읽기 교육의 목표 실현을 위한 방법

- **통독**: 피교육자의 이해력과 집중력, 적극적인 학습의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수준이 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위해 수강 전 인터뷰와 15명 수강인원 제한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전읽기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통권읽기를 시도하는 것은 비록 교수자의 탁월한 교수법과 교육적 지혜가 발휘된다 해도 교육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 **다독/발췌독**: 이러한 교육방식의 장점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인간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대가들의 사유와 그것의 맥락화를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읽어야 할 고전 텍스트의 선택권을 교수가 결정하거나 통일된 텍스트(교재)를 만들어 강좌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교수자와 학습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통권읽기에서 맞볼 수 있는 깊이 있는 이해와 사유를 재구성해내는 구조적 독해기법을 체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 이하준(2014), 「인성함양을 위한 고전교육의 방향 탐색」

3. 고전읽기 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고민

- 교육방법의 문제 : 고전읽기 교육의 목표 실현을 위한 방법

- '빈 틈'을 찾는 유희적 읽기: 고전읽기 과정은 정답 찾기가 아니라 문제 제기 과정이다. 문제 제기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세계, 선입관 등을 파괴하며 다시 재구성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학생들에게 때로는 불편함과 '기분 좋은' 낯섬을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빈 구멍'을 발견하게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불확정적인 것에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시도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 LBL(Life Based Learning)에 근거한 재맥락화 교육: 고전은 다양한 현대 문화 속에서 그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옷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 운명을 지닌다. 고전을 토대로 한 현대의 문화콘텐츠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토대로 하여 새롭게 탄생됨으로써 그 존재 의미를 더한다. 따라서 고전 텍스트 읽기 이후 반드시 수강생들이 자신이 읽은 것을 재맥락화하여 텍스트를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재구성의 기준은 자신의 기존의 경험과 삶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조혜경(2020), 「고전교육의 쟁점과 사례 연구」

- '유희적 읽기'는 고전 텍스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 유발을 위한 문화 콘텐츠의 제공은 고전읽기의 참 맛을 잃게 할 수도
-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고전을 읽을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한 고민

4. 고전읽기 교육의 실제: 단국대의 경우

4. 고전읽기 교육의 실제: 단국대의 경우

- 공통교양 <명저읽기> 교과목의 기본 성격

- <명저읽기>는 책을 읽고, 읽은 것을 바탕으로 토론한다. 따라서 이 강좌는 독해 능력, 글쓰기 능력, 토론 능력 등의 기초능력을 함양시킬 것이다. 책을 읽고 쓰면서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면 자기성찰능력도 생길 것이고, 이러한 자기성찰능력은 역지사지하는 의사소통능력의 개발로 이어질 것이다. 자기성찰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 이외에도 새로운 가치나 의미를 상상할 줄 아는 심화 능력이 길러질 것으로 판단한다. 결국 이 모든 능력은 단지 기술적인 능력이 아니라, 한 인격의 보다 우수한 인간관,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리라고 본다.

- 김주언 외(2020), 대학혁신지원사업 교과목(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결과 보고서(명저읽기)

- 고전 혹은 명저에는 전공지식의 도구적 쓰임새로 쓸모가 가다듬어진 도구적 지식 이전의 지식과, 그 한 정적 쓰임새의 지식 이후의 지식이 모두 담겨 있다. 전공의 칸막이로 보호되지 않았던 지식의 야성과 바다가 고전 혹은 명저에는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이다. 「명저읽기」 교과목에서 고전 혹은 명저의 통권 읽기를 기본으로 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 야성의 바다를 있는 그대로 호흡하게 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 윤승준(2021), 「고전교육, 교양필수 교과목 운영 사례」

4. 고전읽기 교육의 실제: 단국대의 경우

- 공통교양 <명저읽기> 교과목 운영의 기본 원칙

- <명저읽기> 교과목은 크게 <명저읽기:인문>, <명저읽기:사회>, <명저읽기:자연>으로 삼분하고, 각 영역 안에 하위 교과목군을 두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이 세 영역은 교과목 코드를 달리함으로써, 추가 선택으로 수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다.
- <명저읽기>의 텍스트는 <단국권장도서 101>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 교과목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수자 재량으로 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다.
- <명저읽기>는 텍스트를 읽은 교수자가 텍스트를 읽지 않은 학습자에게 텍스트의 의미를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강좌가 아니다. 읽고, 쓰고, 토론하는 활동이 주요 학습 활동이 되어야 한다.
- <명저읽기> 강좌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할 줄 아는 공감능력, 새로운 의미나 가치를 상상할 줄 아는 탐구능력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둔다.
- 성적평가 방식(읽기 40%, 쓰기 30%, 토론 30%)을 통하여 강의 진행 및 교수법이 일정 수준에서 균질성을 갖도록 한다.
- 교수자는 읽기, 쓰기, 토론에 대해 지속적인 피드백을 수행해야 한다.

– 김주언 외(2020), 대학혁신지원사업 교과목(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결과 보고서(명저읽기)

4. 고전읽기 교육의 실제: 단국대의 경우

- 공통교양 <명저읽기> 교과목에서 다루는 텍스트

교과목명	텍스트
명저읽기:인문	일리아스, 아이스퀼로스 비극 전집, 소포클레스 비극 전집, 에우리피데스 비극 전집, 오이디푸스 왕, 안티고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파우스트, 위대한 유산, 크리스마스 캐롤, 죄와 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시지프 신화, 페스트, 노인과 바다, 사랑의 기술, 수사학, 시학, 실천이성비판,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역사란 무엇인가, 꿈의 해석, 정신 분석강의, 슬픈 열대, 월든, 논어, 맹자, 도덕경, 사기열전, 국화와 칼, 마음, 설국, 상실의 시대, 토지, 김약국의 딸들, 파시, 광장, 회색인, 태백산맥, 남한산성, 흑산
명저읽기:사회	군주론, 자유론, 인간불평등기원론, 국부론, 정의론, 정의란 무엇인가, 공산당 선언, 자본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문명화 과정,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오리엔탈리즘, 열린 사회와 그 적들, 미디어의 이해, 총·균·쇠, 학문의 권장, 목민심서
명저읽기:자연	과학혁명의 구조, 짧고 쉽게 쓴 시간의 역사, 인류사를 바꾼 위대한 과학, 코스모스,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침묵의 봄, 엔트로피, 이기적 유전자

4. 고전읽기 교육의 실제: 단국대의 경우

- 공통교양 <명저읽기> 교과목 운영의 실제

구분	주요 내용
개설 분반 및 수강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학기 3개 교과목(명저읽기:인문, 사회, 자연), 65개 내외 분반 개설 • 40명 기준 분반, 매 학기 2,200여 명 수강
교수학습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 '토론'- '쓰기'를 연계한 통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 통독을 원칙으로 함(독서노트 작성, 요약문 작성, 퀴즈) - 토론: 조별발표 및 토론 - 쓰기: 독후에세이, 학술적 에세이, 창의적 글쓰기
성적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평가 II 적용: A~A+ 40%, F~B+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30%): 독서노트, 요약문, 퀴즈 - 토론(30%): 조별발표 및 토론 - 쓰기(30%): 독후에세이 등 - 기타(10%): 출석 및 참여도
비교과 프로그램	브라운 백 렉처, 사페레 아우데, 독서토론대회, 우수 글쓰기 대회
교육의 질 관리	매 학기 교강사 워크숍 개최, 강의평가, CQI 보고서, 교육성과 진단 및 분석

4. 고전읽기 교육의 실제: 단국대의 경우

● 공통교양 <명저읽기> 교과목의 강의계획서(예시)

<p>교과목 개요</p>	<p>이 강좌는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작품을 함께 읽고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괴테의 작품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건져 올릴 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 강좌에서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파우스트> 등 괴테의 주요 작품을 통독한다. 그리고 각자 읽으면서 공유하고 싶은 대목을 찾아 소개하고, 더 생각해 볼 문제들을 찾아내 자유롭게 토론하며, 그와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인간적 성숙을 도모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넓히는 것, 나아가 자신의 인생에서 부딪힐지도 모르는 온갖 어려움과 영욕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내공을 축적하도록 하는 것이 이 강좌의 궁극적 목적이다.</p>	
<p>학습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읽으며 맥락 속에서 의미를 찾아 이해할 수 있다. 2. 책을 읽고 저자 또는 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그녀의 생각이나 행동에 공감할 수 있다. 3. 책을 읽고 오늘의 현실이나 인간 본질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다시 생각할 수 있다. 4. 책을 읽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토론할 수 있다. 5.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낼 수 있다. 	
<p>주차별 강의주제</p>	<p>1주 오리엔테이션 2주 괴테의 삶과 시대배경,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대한 배경적 이해(강의) 3주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1(독서노트) 4주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2(조별토론) 5주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3(독후에세이) 6주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대한 배경적 이해(강의) 7주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1(독서노트) 8주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2(조별토론)</p>	<p>9주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3(독후에세이) 10주 <파우스트>에 대한 배경적 이해(강의) 11주 파우스트 1(독서노트) 12주 파우스트 2(조별토론) 13주 파우스트 3(독후에세이) 14주 괴테의 삶과 문학에 대한 종합적 이해 15주 기말과제 제출</p>
<p>성적평가</p>	<p>과제물 30%, 발표 및 토론 20%, 중간 및 기말 에세이 30%, 출석 20%</p>	

4. 고전읽기 교육의 실제: 단국대의 경우

- 공통교양 <명저읽기> 교강사 워크숍

회차	일시	주제	장소
1	2020.01.03.	윤승준, 대학 4.0 시대의 교양교육: <명저읽기>, 고전교육 방법에 대한 고민 (총 3편)	범정관 314
2	2020.02.18.	김주연, <명저읽기> 강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인문관 401
3	2020.06.18.	박재휘, <명저읽기:인문> 논어 읽기 (총 3편)	범정관 505
4	2020.09.14.	권순구, 2020-1학기 <명저읽기> 교과목 운영의 교육적 성과 (총 4편)	Zoom(천안)
5	2020.11.25.	이현경, <명저읽기:인문> 꿈의 해석 강의 사례 (총 2편)	Zoom(죽전)
6	2021.06.11.	김미정, <명저읽기:사회> 교과목 운영 사례, 문명화과정 강의 (총 2편)	Zoom(죽전)
7	2021.07.13.	김상엽, <명저읽기:인문> 역사란 무엇인가 (총 2편)	Zoom(천안)
8	2021.12.17.	박정하, 성균관대 <고전명저북클럽> 현황 (총 2편)	Zoom(죽전)
9	2022.01.18.	이영준, 위대한 것의 감각 -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의 고전교육 (총 2편)	Zoom(천안)
10	2022.06.16.	민병교,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총 2편)	Zoom(죽전)
11	2022.12.16.	임지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총 2편)	Zoom(죽전)

4. 고전읽기 교육의 실제: 단국대의 경우

- 공통교양 <명저읽기> 강의평가 결과

구분	죽전캠퍼스				천안캠퍼스				평균
	인문	사회	자연	평균	인문	사회	자연	평균	
2020-1	4.30	4.13	3.92	4.22	4.22	3.96	4.09	4.05	4.14
2020-2	4.24	4.19	4.31	4.23	4.09	3.99	3.80	4.00	4.12
2021-1	4.39	4.44	4.60	4.43	4.28	4.02	4.29	4.19	4.31
2021-2	4.39	4.35	4.59	4.41	4.16	3.98	4.38	4.17	4.29
2022-1	4.31	4.31	4.15	4.25	4.14	3.89	4.49	4.17	4.21
2022-2	4.28	4.28	4.39	4.31	3.75	3.70	4.22	3.89	4.10
평균	4.32	4.31	4.40	4.34	4.10	3.92	4.21	4.08	4.21

4. 고전읽기 교육의 실제: 단국대의 경우

- 공통교양 <명저읽기> 강의평가 결과: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주관식 기술)

긍정적 평가	개선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을 읽고 자신이 생각한 점과 느낀 점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매주 가지는 점이 좋았다.• 토론 수업을 통해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에 대해 이해하며 시사문제에 대한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아 만족스럽다.• 과제를 통해 다른 친구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 열심히 하면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생각의 깊이가 깊어짐• 다음 학기에 000 교수님의 <명저읽기 2> 수업이 없는 것이 제일 아쉬운 점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이 어렵다.• 책의 분량이 너무 많다.• 조별 과제에 대한 부담이 크다.•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수업이라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수강생들 간의 의견 교환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적정 크기의 강의실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고전읽기 교육의 실제: 단국대의 경우

- 공통교양 <명저읽기> 강의평가 결과: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주관식 기술)

이번 학기 과목 중 가장 좋아했던 과목. 다른 학교가 아니라 단국대에 입학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 들었던 이유가 되어준 수업이었고 소설을 싫어했던 내가 고전소설을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수업이었다. 학기가 끝나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연락이 닿아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하는 교수님이었다.

- 2021-1학기 <명저읽기:인문> 분반6 수강생

이번 학기에 <명저읽기> 과목을 수강하며 세 가지의 책을 읽었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파우스트. 모두 제가 찾아서 읽을 만한 책들은 아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대학생들이 책을 자신이 직접 주체적으로 찾아서 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이 <명저읽기>라는 수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이 수업이 아니었다면 저는 괴테라는 작가의 이름만 알 뿐 그의 작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책을 읽으며 분명히 힘든 부분, 포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었던 순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마저도 지금은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수업은 저에게 책을 읽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책을 읽고 살았던 저에게 문학의 즐거움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고 학우분들과 토론을 하게 해준 것은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저에게 좋은 경험을 만들어준 교수님과 많은 학우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 2022-2학기 <명저읽기:인문> 분반15 수강생

4. 고전읽기 교육의 실제: 단국대의 경우

- 고전교육 교육성과 진단 도구 개발

구분	하위 영역	문항 내용(예시)
독해역량 (8)	사실적 독해(5)	• 나는 책을 읽으며 중요한 내용과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구분할 수 있다.
	비판적 독해(3)	• 나는 책이 쓰인 시대적 상황이나 배경을 고려하여 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의사소통 역량(6)	말하기(3)	• 나는 책을 읽고 내 생각을 근거를 들어 말할 수 있다.
	쓰기(3)	• 나는 책을 읽고 주제에서 파생된 논점을 잡고 글을 쓸 수 있다.
창의역량(4)		• 나는 책을 읽고 배운 내용을 다른 글(또는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문제해결 효능감(4)	과제해결	• 나는 책을 읽고 관련된 문제(과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다.
	자료검색	• 나는 책을 읽고 관련된 문제(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을 자신이 있다.
	자료정리	• 나는 책을 읽고 관련된 문제(과제)의 관련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자신이 있다.
	원인분석	• 나는 책을 읽고 관련된 문제(과제)의 발생 원인을 파악할 자신이 있다.

4. 고전읽기 교육의 실제: 단국대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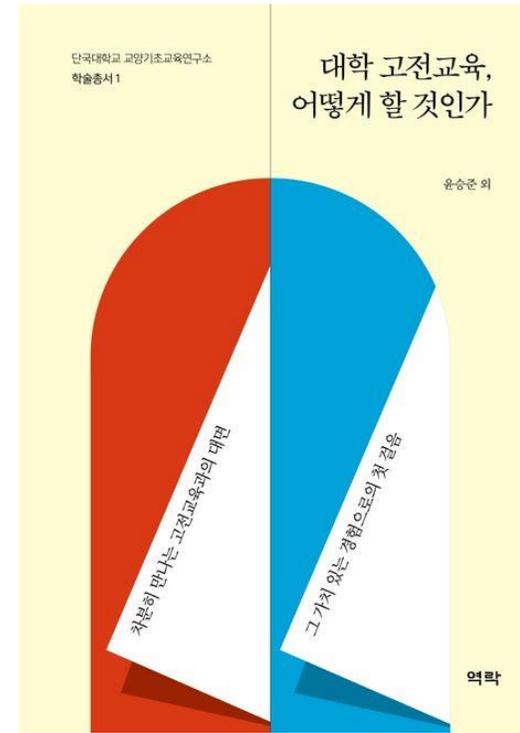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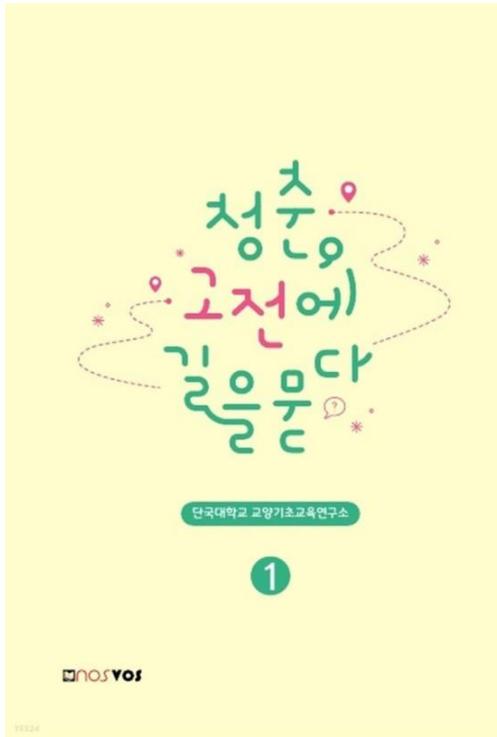
▪ <명저읽기> 교육성과 진단 결과 (2020-1학기~2021-2학기)

(7점 Likert 척도)

구분	학기	2020-1		2020-2		2021-1		2021-2	
	변인명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전	독해역량	5.02	0.98	5.20	0.84	5.21	0.94	5.56	0.85
	의사소통역량	5.12	1.06	5.29	0.97	5.30	1.00	5.62	0.93
	창의역량	4.97	1.05	4.82	1.07	4.97	1.06	5.17	1.09
	문제해결 효능감	4.76	1.07	5.08	1.01	5.13	1.05	5.43	0.97
	상황적 흥미	4.98	1.05	5.07	1.17	5.08	1.26	5.21	1.20
	개인적 흥미	4.73	1.44	4.94	1.14	4.81	1.24	5.04	1.18
사후	독해역량	5.46	0.95	5.44	0.88	5.63	0.93	5.74	0.86
	의사소통역량	5.54	0.99	5.52	0.95	5.68	0.93	5.82	0.91
	창의역량	5.21	1.11	5.16	1.08	5.45	1.00	5.44	1.04
	문제해결 효능감	5.37	1.09	5.37	1.06	5.61	0.98	5.73	0.94
	상황적 흥미	5.18	1.47	5.09	1.43	5.47	1.29	5.37	1.29
	개인적 흥미	5.03	1.43	5.02	1.38	5.29	1.26	5.22	1.30

4. 고전읽기 교육의 실제: 단국대의 경우

- 문답식해제 『청춘, 고전에 길을 묻다』 시리즈 및 학술총서 발간



4. 고전읽기 교육의 실제: 단국대의 경우

- 고전읽기 교육 관련 학술대회 개최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제1회 학술대회

인문 고전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기초강연
 | 고전읽기와 교양교육 |
 발표자: 장인호 (부산대)

발표 1
 | 교양교육과 문학 |
 - 경희대 '고전읽기' / 북경리 토지를 중심으로 -
 발표자: 김연숙 (경희대)
 토론자: 장인숙 (단국대)

발표 2
 | 영자역에서 질문생성을 위한 수업방법 |
 - 그리스 비극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
 발표자: 김유미 (단국대)
 토론자: 송효정 (단국대)

발표 3
 | 서울대 인문 고전교육 "특시 세미나 - 고전에 길을 묻다" |
 - 니체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기를 중심으로 -
 발표자: 김경식 (서울대)
 토론자: 김주환 (단국대)

▶ **일시** : 2020년 6월 13일(토) 14:00-16:40
 ▶ **장소** : ZOOM 화상회의로 진행
 (단국대학교 및 교양기초교육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주최: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후원: 단국대학교 NRF 한국연구재단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제2회 학술대회

사회과학 고전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장소 | 인문관 404/405호
 ZOOM 온라인 화상 회의
 | 일시 | 2021.06.04.(금) 오후 2시

14:00-14:30 **개회식** 사회: 이윤진 교수 (단국대)
 개최자: 송승준 교수 (단국대)

14:30-14:45 **제1발표** **해임 스미스의 '국부론'과 교양교육**
 발표: 서문석 교수 (단국대)
 토론: 신재원 교수 (영남대)

14:45-15:20 **제2발표** **자유를 향한 싸움의 실용적 기술로서 사회과학 고전 읽음**
 :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중심으로
 발표: 김주환 교수 (영남대)
 토론: 권오영 교수 (충남대)

15:20-15:30 **중식**

15:30-16:00 **제3발표**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의 교육적 의미와 한계성**
 발표: 김민수 교수 (단국대)
 토론: 김동혁 교수 (광주 과학기술대)

16:05-16:40 **제4발표** **지속 가능한 발전 맥락의 사회과학 교육**
 : '행복' (안토니오 데 사토를 위한 회화 '인문학'을 통해 살펴본 사회과학 고전 읽기 구성과 운영
 발표: 김경희 교수 (영남대)
 토론: 서진숙 교수 (충남대)

16:40-17:30 **종합토론** 좌장: 이봉우 교수 (단국대)
 참석자: 전임

17:30-17:40 **폐회식**
 개최자: 송승준 교수 (단국대)

연락처 (TEL: 031-8005-2658 / E-mail: dlarc@danook.ac.kr)

주최: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후원: 단국대학교 NRF 한국연구재단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제3회 학술대회

자연과학 고전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2022년 1월 21일(금) 오후 14:00-17:40
 장소: ZOOM 화상회의 / 단국대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인문관 404-405호
 문의: TEL: 031-8005-2658 / Email: dlarc@danook.ac.kr

14:00-14:10	등록 및 개회	개회자: 송승준(단국대)
제1부 사회: 백주진(단국대)		
14:10-14:45	필름이 끊긴 어느 날 아침 : '와씨 451'과 '동물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으로 들여다보는 고전의 의미 발표: 이준기(전북대) 토론: 손연아(단국대)	
14:45-15:20	과학 고전과 과학 교양 사이 : 종의 기원과 진화 발표: 박종석(경북대) 토론: 권분호(경북대 사대부고)	
15:20-15:30	중식	
제2부 사회: 백주진(단국대)		
15:30-16:05	양자역학 태동의 한 단면 : 부분과 전체 발표: 정영숙(영국국립대) 토론: 김민철(경주대)	
16:05-16:40	과학과 세계의 대화 : 과학혁명의 구조와 생각의 탄생 발표: 조현국(단국대) 토론: 하정우(경북대)	
16:40-17:30	종합토론	좌장: 이봉우(단국대)
17:30-17:40	폐회	

주최: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후원: 단국대학교 NRF 한국연구재단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제4회 학술대회

동양고전 교육의 과제와 방향

일시: 2022년 2월 10일(금) 10:00 - 13:00
 장소: 단국대학교 석주당기초학술관 컨벤션홀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TEL: 031-8005-2658 / Email: dlarc@danook.ac.kr)

10:00-10:05	개회식	사회: 송승준(단국대)
10:05-10:10	등록	
10:10-10:15	개회식	사회: 백주진(단국대)
10:15-10:20	중식	
10:20-10:40	제1발표	사회: 송승준(단국대)
10:40-11:30	제2발표	사회: 송승준(단국대)
11:30-12:40	제3발표	사회: 송승준(단국대)
12:40-13:00	제4발표	사회: 송승준(단국대)
13:00-13:05	종합토론	사회: 송승준(단국대)
13:05-13:10	폐회식	사회: 송승준(단국대)

주최: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후원: 단국대학교 NRF 한국연구재단

4. 고전읽기 교육의 실제: 단국대의 경우

- 공통교양 <명저읽기>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

문제 영역	현행	개선 방향
성적평가 방식	상대평가 Ⅱ	절대평가
강의 규모	40명	25명 미만
교육 환경	일반 강의실, 계단식 대형강의실	서로 마주보며 토론할 수 있는 강의실
교과목 이수 기준	3개 교과목 중 1개 교과목(3학점) 필수 이수	원하는 만큼 이수할 수 있도록 개방
마이크로 전공	없음	고전읽기 마이크로 전공 신설
전공교육과정과의 연계	없음	필요 시 cross listing 허용
교수학습방법	읽기-토론-쓰기 중심	새로운 교수학습방법론 개발 지원
교육성과 진단	양적 성과 진단 및 분석	양적/질적 성과 진단 및 환류

4. 고전읽기 교육의 실제: 단국대의 경우

- 공통교양 <명저읽기>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

- 학생들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자면 교수의 관심이 필수적인데, 이는 교수의 관심이 좋은 수업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학자 활동에 따르는 승진, 연봉 인상, 휴가 같은 보상들이 학생들에 대한 실제적인 관심과는 무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많은 교육 현장에서는 사실 가르치는 일이 그 자체로 보상이기도 하다.

- Andrew Delbanco(2012), *College: What it was, is, and should be*

- “나이가 들수록 말이야, 선생이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소년의 눈에서 아주 가끔 번뜩이는 불꽃 때문이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네. 그 불꽃을 보며 그게 어디서 오는지 고민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일세. 그게 호라티우스의 송시에서 오든, 아이슬란드의 영웅담에서 오든 아니면 실험실에서 펄 하고 터지는 무언가에서 오든 상관 없단 말이네.” - 프랭크 프레스콧

- Auchincloss(1964), *The Reactor of Justin*

